



천체사진가 신범영

제17회 천체사진공모전 입상자 중에 특별한 두 사람이 있다. 부자 사이인 신범영 씨와 신용찬 군이 그 주인공이다. 아버지 신범영 씨는 일반부 동상을, 아들 신용찬 군은 청소년부 은상을 수상한 것이다. 이들 부자를 만나기 위해 신범영 씨 집을 찾았다.

“아들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절 따라서 별 보러 많이 다녔어요, 요즘은 중학생도 공부하느라 바쁘더군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자주 다니지는 못하고 있어요.”

신범영 씨의 고향은 경기도 청평이라 한다. 지금은 도시화가 많이 됐지만 어렸을 때는 까만 밤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별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어린 시절의 이런 추억은, 도시에서의 생활과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 한 구석으로 밀려나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별을 다시 찾게 된 것은 2003년부터였다고 한다.

“80년대부터 사진에 관심이 있었고, 항상 별을 다시 봐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간상으로 여유 있을 때라는 조건을 달고 좀 미뤄두기는 했지만요, 그런데 2003년에 건강이 ‘심각하다.’라고 얘기할 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삶에서 큰 위기였지만 인생을 뒤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미뤄두었던 별보기를 좀 더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동호회에 가입해 별을 보러 다녔다고 한다. 그러다 보는 것만으로는 아쉬움이 있어 천체 사진에 입문하게 되었다.

“2004년에 홍천을 갔습니다. 진짜로 은하수가 가로지르는 밤하

늘이 있더군요. 한 20여 년 만에 보는 은하수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죠. 그 감동을 사진에 남기고 싶었어요. 마침내 어렸을 적 잡지에 난 광고를 보면서 그렇게 갖고 싶었던 망원경을 샀습니다. 학생 때는 망원경을 살만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끼시던 안경에서 알을 빼서 망원경을 만들어보기도 했었죠. 흐릿했지만 달 표면의 운석구덩이가 보이더군요.”

안경알 망원경에서 시작해 지금 그가 갖춘 장비는 아마추어 천문인이자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최상의 장비들이다. 12.5인치 구경의 ADT Kastron 320DS(F4.5 Newtonian)와 Astro-Physics 사의 1200GTO 적도의, 거기에 SBIG 사의 STL-11000M CCD 카메라가 바로 그 장비이다.

“2005년쯤에 미국에 연수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SBIG 사의 STL-11000M이라는 CCD 카메라를 사서 들고 왔습니다. 아마도 국내에 도입된 1호기였을 겁니다. 카메라라고는 하지만 그냥 찍으면 멋진 사진이 나오는 그런 카메라는 아닙니다. 맥심(Maxim)이라는 CCD 제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 백 페이지에 달하는 영문 설명서를 섭렵하고 나서야 조금 사진 같은 사진이 나오더군요.”

그렇게 찍은 사진을 2006년에 처음으로 천체사진공모전에 출품했고, 뜻하지 않게 금상을 받았다. 이후 출품 때마다 입상을 했다.

“공모전에 출품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무래도 천체 사진이

라고 하면 뭔가 전문적인 느낌도 들고, 장비도 갖춰야 하기 때문이겠죠. 일반부도 그렇지만 청소년부는 더 심한 편입니다. 우리 아이가 천체 사진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수백만 원이 넘는 장비를 사줄 부모는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런 점에서 아들 녀석은 아버지 덕을 보는 셈이죠.”

어렸을 때는 관측회에 따라와서도 공을 차며 노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천체 사진에 관심을 갖지는 않았단다. 그러다 학년이 올라가서 카메라를 한 대 쥐어줬더니 1년에 수 만 장을 찍을 만큼 사진 찍는 재미에 빠졌다고 한다.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일상의 자질구레한 것들을 사진에 담더군요.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천체 사진에도 관심을 보이고요. 이번에 출품했던 사진은 작년 겨울에 촬영한 겁니다. 날이 굉장히 추웠는데, 밤새 망원경에 붙어서 사진을 찍더군요. 아주 잘 나온 사진은 아니지만, 청소년부 참가자가 워낙 적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아요. 아이에게는 좋은 추억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입상에는 상금이 따르는 법. 아들 신용찬 군에게 돌아간 상금의 행방이 궁금해서 물어 보았다. 다음은 신용찬 군의 말이다.

“아직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했어요. 받아도 일부만 필요한 데 쓸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잘 몰랐는데, 중학생이 되니까 천체 사진을 마음껏 찍을 수 있다는 것이 제게 주어진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 그렇게 관측회 가서 사진 찍는 것도 재밌고요.”

좋은 장비를 갖춘 덕분에 부자는 즐겁게 취미를 즐길 수 있지만, 이런 환경을 만드는 데는 적지 않은 금전적 투자가 필요한 만큼 가족 구성원의 이해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내는 최대한 이해해주고 도움을 줍니다. 별 보는 취미라는 게 일주일이면 며칠씩 밤에 짐을 비우는 경우가 많습시다. 오후쯤 하늘을 봐서 좋다고 생각하면 바로 관측지로 가니까요. 그럴 때마다 아내에게 전화를 하면 항상 조심해서 잘 갔다 오라는 얘기만할 뿐, 싫은 소리 한번 한 적이 없어요. 늘 고맙고, 미안하죠.”

신범영 씨는 그렇게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별을 보러 다녔다고 한다. 그런데 늦은 밤까지 관측하고 다음 날 일을 하려니 몸이나 마음이 피로할 수밖에 없었다.

“200kg이 넘는 장비를 차에 싣고 두세 시간을 달려 관측지에 갑니다. 도착해서 장비를 설치하는 데만도 두 시간이 걸려요. 사진 찍고 철수하는 데 한두 시간, 또 집에 돌아오는 데 두세 시간. 이런 강행군을 반복하다 보니, 이동하고 장비를 설치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더군요. 피곤한 상태에서 차로 오가는 것도 위험하고요. 일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일 년이면 수십 번인데, 과연 매번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싶은 걱정도 들더군요. 그래서 생각한 게 원격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시 아마추어 천문가 이진호 씨가 덕초천 천문인마을에 원격관측시스템을 구축했다. 이것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

었다고 한다.

“2007년 여름, 강원도 화천 광덕산에 제가 활동하는 천문 동호회인 ‘별만세’의 고정 관측지를 확보했습니다. 장비를 설치해둘 수 있는 곳만 있다는 것으로도 엄청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추운 곳에서 떠는 일도 없어졌고요.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니 사진도 훨씬 좋아지더군요. 그런데 여전히 이동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원격시스템 구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신범영 씨는 원격관측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찾고 연구하는 데만 꼬박 6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같은 부품이어도 천문 장비라고 하면 가격이 비싼지라 작은 나사 하나까지도 인터넷을 뒤져서 저렴한 걸 찾아내야만 했다.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작년 2월에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1년이 좀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성공적입니다. 원격관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시스템의 안정성인데, 인터넷 회선에 작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빼면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이 있는 곳이라면 서울 한복판 카페에 앉아서도 화천에 있는 돔을 열고 망원경을 움직여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신범영 씨는 살면서 이루었던 많은 일 중에서 가장 큰 성취감을 준 것이 바로 이 원격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다. 신범영 씨는 노트북으로 원격시스템을 가동해 같은 시간 화천 하늘에 떠있는 달을 찍어서 보여주었다. 그 모습에 기지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지금까지 찍은 사진이 750GB 하드 2개를 넘었고, 그 중 10%밖에 처리를 못 했어요. 원격시스템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만약 누군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면 전적으로 도움을 드릴 생각입니다.”

신범영 씨는 별을 보면서 찾게 된 화두가 열정이라고 한다. 뭔가 열정을 갖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지, 그걸 경험했다는 것이다. 신범영 씨 가족과 함께 한 그날 저녁은, 신범영 씨의 뜨거운 열정과, 그 열정을 이해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